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봉화 거화수〉

- 1거—평시
- 2거—적 출현
- 3거—적 국경에 접근
- 4거—적 국경 침범
- 5거—적과 싸울 경우

12) 『성종실록』 111, 10년 11월 丁未

광양의 섬진에는 조선 후기 진보(鎭堡)가 설치되어 별장이 파견되고 군인이 배치되었다. 광양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수령을 파견함에 있어서도 무인이 파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¹²⁾

조선 전기부터 광양의 군사적인 입지의 중요성이 중앙정부에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재 조선 후기 광양의 군인수, 군량미, 각종 무기 등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 광양 지역의 군사적인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사진2-46 : 봉화산

제2절 조선의 사회경제구조와 광양

1. 광양의 신분제도

조선시대는 양반 중심의 사회였다.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하여는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의 구분에 의한 양천제설과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4개 신분설로 이견이 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는 4계층에 의한 신분구조로 구성되어 정착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선은 성리학의 영향으로 신분

질서가 엄격하게 고착되는 현상이 빚어졌던 사회라고 하겠다.

지배층을 형성하였던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가르키는 말에서 나왔으나 차츰 지배계층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양반은 사족(士族), 사대부(士大夫)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이 양반이 될 수 있었으며, 양반으로 불리워졌을까. 우선 양반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품관(品官)이 되어야 한다. 품관에는 문무과거를 통하여 품관이 되거나 잡과(雜科)나 문음(門蔭) 등을 통하여 품관이 되는 길이 있었다. 그런데 기술관은 문무품관과는 달리 구별되어 양반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무품관을 가진 사람을 양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무품관의 가족, 친족들도 양반층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양반들도 4조(부, 조, 증조, 외조)내에 9품 이상의 문·무관(正職을 가르킴)을 지낸 사람이 있어야만 양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양반은 대체로 지주 출신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다. 양반에게는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었다. 물론 문무과에는 양인신분이면 응시할 수 있었지만, 문무과 급제자는 대부분 양반 출신이었으며, 양반 자제에게는 처음 벼슬길의 통로로 문음(門蔭)의 혜택이 주어졌다. 또한 고위관직은 양반의 전유물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양반들은 군역에서도 혜택을 받았다. 양인이면 군역을 져야 했지만, 양반은 관직에 있거나 성군관, 향교 등의 유생이 됨으로써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또한 양반자제들은 무반의 특수군에 소속함으로써 품관을 얻거나, 체아직(遞兒職)에 속함으로써 군역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양반들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향촌에 거주하는 경우 나름대로 양반의 자치기구를 형성하여 향촌내에서 지배층의 지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양반들이 조직한 기구로는 유향소, 향회 등을 들 수 있다. 광양 지역의 유향소나 향회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다른 지역의 양반들과 마찬가지로 활동하였을 것이다. 양반들은 향약, 향규 등을 통하여 향촌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자신들의 이해를 결속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양반들은 서원이나 사우(祠宇), 문중조직을 통하여 양반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신흥양반의 등장과 신분제의 동요로 인하여 양반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양반들은 더욱 폐쇄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계(洞契)나 동족마을을 형성하는 등 신분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양반들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향촌에 거주하는 경우 나름대로 양반의 자치기구를 형성하여 향촌내에서 지배층의 지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광양의 중인계층은 향리들이 중심이었다. 향리계층은 고려시대에는 지방의 지배층으로 활동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사족인 양반층의 형성으로 중인계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비록 지방관의 통제 아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지만 향리는 지방에서 실질적인 행정 담당자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향리들은 관청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을 것이며, 그 직을 세습하였다. 현재 광양의 향리계층을 형성한 성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상민은 일반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처럼 일반 행정 구역이 아닌 특수 행정구역인 향, 소, 부곡 등이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일반 백성은 상민에 속하였다. 일반백성은 농업, 어업, 수공업, 상업 등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여 나갔다. 광양 지역은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었던 지역이었으므로 농업 뿐 아니라 어업, 수공업 등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상민들의 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구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 역이나 나루터, 숙박시설인 원(院)에 거주하는 일반백성도 있었다.

천민계층의 대표적인 존재는 노비이다. 무당, 백정(白丁) 등이 천민에 속하기는 하지만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노비는 관공서에 속한 공노비(公奴婢)와 개인에게 속한 사노비(私奴婢)로 나뉘어진다. 노비는 매매, 증여, 상속 등이 가능하여 재물로 여겨졌으며, 신분이 상속되었다. 현재 광양 지역에 남아 있는 1696년 이후 호적단자 등을 보면 양반호주의 집안에 상당수의 노비가 기록되어 있어 광양의 양반들이 소유한 사노비(私奴婢)의 대략을 엿볼 수 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성된 신분층이 광양 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조선 후기 호적대장이 남아 있는 지역들을 통하여 신분적인 구성비를 유추할 수 있지만, 후대로 갈수록 양반의 인구가 증가되고 노비의 수가 감소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양 지역의 신분구성을 짐작하는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숙종 16년(1690) 대구 호적대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양반수가 9.2%, 상민수가 49.5%, 노비수가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³⁾ 대체로 양반이 10%, 상민이 50%, 노비가 4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양 지역도 조선 전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신분별 구성비는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현재 광양 지역에 남아 있는 1696년 이후 호적단자 등을 보면 양반호주의 집안에 상당수의 노비가 기록되어 있어 광양의 양반들이 소유한 사노비(私奴婢)의 대략을 엿볼 수 있다.

13)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朝鮮社會經濟史研究, 1976)을 참고한 「광양군지」, 1983, 2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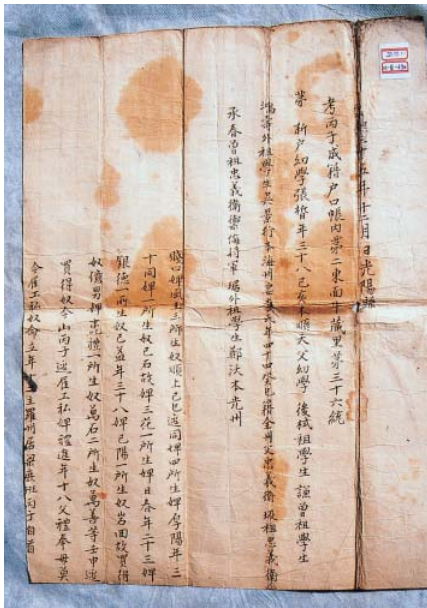


사진2-47 : 옥룡면 장석의 호적 (1696년)

- 14) 『전라남도지』 5, 「조선후기편 사회경제적기반과 변화」, 1993, 참조함.
- 15) 이수건, 「조선초기 호구」, 『영남대논문집 인문과학』, 1971, 『한국사논문선집』 4, 역사학회편, 일조각, 1976, 86쪽, 김동수, 『세종실록 지리지의 연구』, 서강대박사학위논문, 1991, 97쪽.

광양현의 인구수와 성씨, 특수 지역민의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신분 구성과 내부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광양현의 호구수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2-18〉 광양현 호구수 ¹⁴⁾					
구분	자료	세종실록지리지 (1423)	여지도서 (1759)	호구총수 (1789)	대동지지 (1864)
戸		228	3,560	3,706	3,460
인구	남자		6,100	8,102	
	여자		7,340	9,484	
	계	1,220	13,440	17,586	15,850

『세종실록지리지』에는 228호, 1,220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 각종 자료에 나오는 수와 비교하여 그 수가 너무 적다. 호수는 자연호가 아니라 정액으로 편성한 편호(編戶)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인구는 남자 정호(丁

戸 :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임으로 그 수가 조선 후기 기록에 비해 월등하게 적게 나타나고 있다.¹⁵⁾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에 인구수가 증가하였음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광양의 지배층을 구성하는 성씨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2-19〉 고려-조선 전기/조선 후기 지배층 성씨	
고려-조선 전기 지배층 성씨	김(金)·서(徐)·전(田)·정(鄭)·이(李)·유(柳)·강(康)·신(辛)·박(朴)·황보(皇甫)
조선 후기 지배층 성씨	이천 서(徐), 진주 정(鄭), 웅천 주(朱), 김해 김(金), 밀양 박(朴), 완산 이(李), 진주 강(姜), 창녕 성(成), 청주 양(楊), 순천 장(張), 성주 배(裴), 기계 유(俞), 완산 최(崔), 창원 황(黃)

김, 서, 정, 이, 박씨는 조선 전기나 후기에 보이고 있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 본관이 바뀌었다. 원래 광양을 본관으로 하던 이 성씨들이 후대에 유명 본관에 흡입되었는지, 원래 있었던 성씨 대신에 본관을 달리하는 성씨가 유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가계가 이주하여 광양의 지배층을 조선 후기에는 형성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조선 시대를 통하여 토착 성씨 대신에 새로이 유입된 가계 가운데 향촌의 지배층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광양현의 중인으로는 향리, 군관 등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 기록들에 의하면 광양현의 군관이 30명-50명, 아전(향리)이 20명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익신역에 역리 35명, 섬거역에 역리 94명, 섬진진에 군관 15명, 기패관(旗牌官) 8명, 진무(鎭撫) 14명 등이 보이는데 이들 역시 중인에 가까운 신분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¹⁶⁾ 군관과 향리, 역리 등이 중인 신분을 구성하는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고 조선 후기 대체의 숫자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양인 신분이면서도 그 역이 천시되었던 신량역천(身良役賤)에 해당되었던 관청의 사령(使令)은 20명, 지인(知印)은 5명 정도 기록되어 있다.

노비 가운데 사노비는 파악하기 어렵고, 관노비는 그 윤곽을 알 수 있다. 광양현에 소속된 관노비는 관노(官奴) 5명, 관비(官婢) 4명, 향교 교노(校奴) 19명, 교비(校婢) 7명, 익신역에 역노(驛奴) 7명, 역비(驛婢) 3명, 섬거역에 역노 10-29명, 역비 9명이 보인다. 대략 관노비가 최소한 60-9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2. 광양의 경제구조

광양의 경제구조는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토지의 경작에 따른 세금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바치는 지대는 같았을 것이지만, 광양은 다양한 물산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광양의 토지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비옥하였으며, 2,010결이며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이 각각 절반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 후기 『광양읍지』에 의하면 밭이 962결, 논이 1,875결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논밭이 총 2,840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각종 세금을 거두는 토지는 2,160결 정도였다.

광양의 토지에서는 오곡과 삼, 목화, 닥나무, 왕골 등이 생산되었다. 전답에서 나오는 생산물 이외에도 각종 농산물이 나왔는데, 생강, 석이버섯, 굴, 표고, 송이, 차, 감, 석류, 유자, 대나무 등이 특산물로 생산되었다.

16) 『여지도서』, 『광양읍지』 등에 군관, 향리, 역리의 수자에 차이가 상당수 발견된다.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구체적인 인 수는 언급하지 않는다.

17) 『경국대전』에 의하면 현에 소속된 관노비는 100명, 지방 수령에 딸린 노비는 5명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 기록에 현에 소속된 관노비의 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록상의 누락일 수도 있으나 관노비가 줄어든 조선 후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표2-20〉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광양현 사회경제 현황

구분	자료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토지 비옥 정도		기름짐		
토산물		오곡, 삼, 목화, 닥나무, 왕골, 가래[斑猫], 족제비털[黃毛], 칠, 느타리, 감, 대추, 배[梨],	은구어, 오징어, 조기, 송어, 농어, 병어, 준치, 낙지, 왕새우, 홍합, 전복, 미역, 파래, 김,	

구분	자료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토산물		석류, 표고, 자리, 미역, 석이, 살괭이가죽, 여우가죽, 꿀, 밀[黃蠟] 약재(藥材)- 흰매화, 녹용, 건강(乾薑), 겨우살이풀뿌리[麥門冬], 차[茶] 왕대·은어	생강, 석이버섯, 꿀, 표고, 송이, 차, 감, 닥나무, 석류, 유자, 대나무, 죽전(대화살), 철, 칠, 울금, 복령	은구어, 농어, 오징어, 낙지, 석화, 대합, 석류, 송이, 표고, 감, 닥나무, 죽전, 삼수(약초), 질경이
역			익신역, 섬거역	익신역, 섬거역
원			아마대원, 섬진원, 지장원	옥곡원
창고		염창(소금창)		사창, 관향창, 외창, 해창

* 『여지도서』에 의하면 특산물이 조선 전기 기록에 비해 적게 나와 있지만, 조선 후기 『광양읍지』에 보면 조선 전기에 비해 다양한 특산물이 나오고 있다. 다만 송어, 홍합, 전복, 미역, 감태, 해의(천연 김) 이 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조선 전기와 후기에 산물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광양의 각종 생산물은 육지와 바다에 걸쳐 생산되는 것이었다. 바다에서 는 여러 가지 수산물이 나오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미역, 은구어 가 산물로 기록되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은구어, 오징어, 조기, 송어, 농어, 병어, 준치, 낙지, 왕새우, 홍합, 전복, 미역, 파래, 김 등의 수산 물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철, 칠, 울금, 복령 등의 여러 산물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 물산 의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물산이 나옴에 따라 광양 지역에서 중앙에 바치는 물산도 월별로 다양하였다. 광양 지역에서 바치는 특산물과 관련하 여 광양인의 어려움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광양에서 전복 을 공납으로 바쳤는데, 특히 세인복(細引鰻)은 외딴 섬에서만 생산되어 세 인복을 캐러 갔다가 왜인(倭人)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다. 이러한 연유로 광양 지역의 세인복의 공납을 적당히 줄이도록 하였다.¹⁸⁾ 바다에서 나는 특산물 가운데 공납으로 바치는 세인복을 캐기 위해 외딴 섬으로 갔 다가 일본 어선과 마주쳐 분쟁이 일어났다는 점으로 미루어 바다에서 나는 특산물을 주어진 양만큼 거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광양이 해안에 접하고 있었음으로 수산업은 광양의 주요 경제 토 대 가운데 하나일 수 밖에 없었다. 조선 전기 어량(魚梁-어장)으로 기록된 곳은 남포(南浦) 한 군데만 보이지만, 각 포에는 고기를 잡거나 미역 등 해 조류를 채취하는 어민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비록 조선 시대에 농업을

18) 『성종실록』 47, 5년 9월 癸亥.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수산업 분야가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산업을 통해서 각종 물산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특히 광양의 수산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비록 조선 후기에 해당하지만 김의 양식이라고 하겠다.

광양의 태인도(인호도, 광양시 태인동)에서 1640년경 김여익(金汝翼)이 김을 처음으로 양식하였다.¹⁹⁾ 김여익은 영암 출신으로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나 조정이 항복하자 태인도(인호도)에 정착한 인물로 밤나무와 소나무 가지를 이용하여 김을 양식하였다 한다. 해의(海衣)라고 불린 것이 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김여익의 성(姓)을 빌어서 된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광양 지역의 수산업의 발전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노을도(奴乙道)와 고지포(古之浦)에 염소(鹽所)가 있어 소금을 생산하였는데, 이 소금은 염창(鹽倉)에 모아져 중앙에 바쳐졌다. 염창에서는 소금을 생산하는 염간(鹽干)이 34명 있었으며, 봄과 가을에 중앙에 바치는 소금은 214석이었다.²⁰⁾ 염간은 신분적으로는 양민에 속하지만 실제 역이 고되 천역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노을도와 고지포에 속하여 소금을 생산하여 중앙에 세금으로 바치던 사람들이었다.



사진2-48 : 김 시식지

바다에서 나는 물산 이외에 육지에서 나는 물산 역시 풍부한 지역이 광양이다. 논밭에서 재배한 농작물 뿐만 아니라 감, 대추, 배, 석류 같은 과일, 꿀, 송이버섯, 닥나무, 대나무, 표고버섯 등 각종 작물과 나무들이 생산, 재배되고 있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양 지역에 특용 작물 재배에 노력한 흔적도 보인다. 감초를 재배하도록 나주, 진도, 광양에 묘목을 제공해주고 그 결과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그런데 광양에 재배한 감초만이 제대로 번식하지 않아 광양의 관리에게 죄를 묻고 전라도관찰사로 하여금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²¹⁾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용 작물을 재배하여 번식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감독하였던 것이다.

광양에는 대나무가 많이 생산되었다. 조선 전기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조선 후기에 죽전(竹田)으로 청대(靑大)죽전, 전(箭)죽전, 관(官)죽

19) 1714년 광양현감 허담은 김여익을 추모하고 김양식 보급에 대한 업적을 기린 비문을 짓고 비석을 세웠으나 오늘날 비석은 없어지고 비문만이 전한다. 태인동 궁기 마을에 자리한 김여익의 묘역과 사당이 1987년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1992년에 김 시식 전시관이, 1999년에는 열마을인 용지마을 입구에 김시식지 유래비가 건립되었다.

20) 『세종실록지리지』 광양현.

21) 『문종실록』 7, 1년 5월 1일(戊戌), 『성종실록』 28, 4년 3월 14(甲辰)

전이 나오고 있어 대나무 생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산물을 생산, 재배하고 있으며, 수공업자들이 수공업제품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광양은 고려시대에 이미 각종 소(所)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특산물 산출이 많은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 시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을 것이다. 현재 광양의 수공업 종사자에 대한 현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광양의 관청에 속한 수공업자 수는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광양 지역 수공업자										
공장 종류	유구장	치장	궁인	시인	지장	석장	목장	피장	칠장	계
장인수	1	1	1	1	3	1	1	1	1	11

「경국대전」에 규정된 장인의 수는 관청에 조달할 물건을 만들 장인으로, 이들은 중앙과 광양현에 납품할 수공업제품을 만드는 장인이었다. 지장(紙匠)이 3인이었던 것은 닥나무가 많이 있던 광양에서 종이를 납품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적으로 수공업제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광양에서 거둔 조세나 특산물 등은 조운을 통하여 중앙으로 옮겨졌다. 조선 시대에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육지보다는 바다를 통하여 세금이 중앙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전라도의 조운(漕運)은 용안의 덕성창(德城倉), 영광의 법성창(法聖倉), 나주의 영산창(榮山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²²⁾

광양의 세금은 나주 영산창에 모아져 중앙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나주 영산창은 종종 7년(1512) 수로가 험하여 배가 전복된다는 이유로 폐쇄당하고 영광 법성창에서 종래 영산창에서 관할하던 지역의 조운을 대신하게 되었다.²³⁾ 광양의 조세는 이후 영광 법성창으로 운반되어 중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나주 영산창에는 조운을 위한 선박이 53척이었으며, 영광 법성창은 39척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 영광 법성창에는 29척의 선박이 조운을 담당하였다. 조운은 항상 위험이 따르고, 관선(官船)만으로 충당하지 못해 사선(私船)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병선(兵船)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²⁴⁾ 조운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광양에서는 조세로 운반하는 미곡 10석에 운반가가 2석 5두로 1/4을 차지하였다.²⁵⁾

광양민들은 정해진 조세 외에 운반가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했으니 그 부

22) 「경국대전」 호전 조운.

23) 『성종실록』 16, 7년 9월 戊戌.

24) 『성종실록』 47, 5년 9월 癸亥.

25) 김옥근, 「조선시대 조운제 연구」, 『부산산업대 논문집』 2, 1981, 82쪽.

답이 훨씬 더했다.

육로는 역(驛)을 통하여 연계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경국대전」을 통해 조선 전기 역의 운영을 파악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전라도 지역은 7개 역도(驛道)로 구분되어 역이 편제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6개 역도로 역이 재편되었다. 광양에는 익신역과 섬거역이 있었는데 그 편제는 다음과 같다.



사진2-49 : 익신역터

〈표2-22〉 광양 지역 역의 편제				
구분	역참도	최고 관리	소속 역수	소속역
세종실록지리지	창활도	역승	11	잔수, 갈담, 오수, 은령, 통도, 인월, 익신 , 섬거 , 양률, 낙수, 지신
경국대전	오수도	찰방	11	창활, 동도, 응령, 인월, 잔수, 지신, 양률, 낙수, 덕양, 익신 , 섬거

익신역과 섬거역은 창활도에서 오수도에 속하여 남원, 곡성, 구례, 순천 지역에 연계되는 역로를 구성하였다. 익신역에는 말이 10마리 있었으며, 역리 뿐 아니라 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保人) 42명, 잡무를 담당하는 사람(日守) 10명, 노비 등이 있었다. 그리고 역의 운용을 위한 토지, 말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토지 등이 있었다. 섬거역에도 수자는 다르지만 익신역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사진2-50 : 섬거역터

집필 : 남부대학교 사학과 교수 류창규